

HSBC,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과 민관협력 포럼' 개최

자연기반해법 개념의 도시 숲 조성 and 녹지 분야에서 기업, 정부 협력방안 모색

HSBC 코리아는 생명의 숲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NBS) and 민관협력 포럼'을 12월 15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과 동시에 자연이 가진 탄소 흡수, 저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자연기반해법(NBS) 개념과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과 도시 녹지 분야의 방법론과 민, 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사회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이 '탄소중립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기업의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서울시립대 박찬교수가 '자연기반해법 (NBS)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산림청 박영환 해외 자원담당관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 기반해법 (NBS)으로 산림의 역할과 민관 협력 가능한 이슈, 민관협력 사례' 등을 발표하고 네번째로 서울시 하재호 공원녹지과장이 도시 공원 녹지분야 '자연기반해법(NBS)주요전략'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의숲 신혜영 선임활동가가 '숲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숲'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도시숲 조성 and 관리의 민관 협력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에서는 오충현 동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탄소중립', '자연기반해법', '민관협력', 'ESG'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온라인 청중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HSBC 코리아 정은영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방법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생기기 기대한다. 자연기반 해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는 생명의 숲 홈페이지 (www.forest.or.kr)를 통해 사전신청하며 사전신청자는 당일 자유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 ESG, CSR 담당자 또는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생명의 숲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HSBC 코리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 비전 지원사업',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 환경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서채원 부분부장

2004-0882

chaewon.suh@kr.hsbc.com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9월말 기준 자산은 2조 9천 6백 9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This news release issued by
HSBC Korea